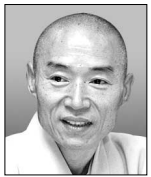


일주문



조계종 종진주지연수
조계종 교육원장 정화 스님은 6월 22-23일 도교 한국관광연수원에서 승탑 30년 이상 대상 종진주지연수를 실시한다. (02)2011-1807-8



문수산악회 6월 산행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6월 25일 문수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소금강 노인봉으로 6월 산행을 떠난다. (03)3332-6664-5



제3차 참살림 수행결사
서울 봉은사 주지 원택 스님은 6월 21일부터 9월 17일까지 봉은사 지장전에서 제3차 참살림 수행결사에 들어간다. (02)3218-4801



새만금 후원의 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공동대표 수경 스님은 6월 26일 오후 4시 대학로 푸리안에서 '새만금 환경모니터링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선남선녀 인연맺기' 템플스테이
육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선남선녀 인연맺기'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을 초청해 6월 24-25일 보은 법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04)3732-5560



'박물관 탄생' 주제 특강
국립중앙박물관 이경우 관장은 6월 24일 오후 2시 박물관 소강당에서 이가동 교수를 초청, '한국 근현대사와 박물관의 탄생' 주제 특강을 연다. (02)2077-9000



신봉승 작가 초청강연회 개최
동국포럼 정재철 이사장은 6월 21일 오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신봉승 작가 초청강연회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를 개최한다. (02)734-7308



국제포교를 위한 후원의 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김봉래 회장은 6월 26일 오후 6시 30분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국제포교를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02)722-2206

불교인재개발원 이사장 허경만씨 등 조직 구성



허경만 전 전남도지사(위 사진)와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아래 사진)가 6월 14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이사장과 원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불교인재개발원은 또 박윤흔(前 환경부장관)씨를 상임고문으로, 허달(SK케미칼 상임고문)·김동건(前 서울고등법원장)씨를 지도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 7월 13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설립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중국포교의 선을 기대하세요”

베이징 한국법당 만월사 첫 지도법사 진명 스님



불교방송에서 7년 간 '차 한잔의 선을'을 진행, 편안한 목소리로 불자들의 인기를 모았던 진명 스님(사진)이 이제는 중국에 한국불교를 꽃피우기 위한 구원투수로 나섰다. 6월 11일 중국 베이징 광제사에서 열린 합동수계법회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베이징 만월사 지도법사에 임명된 진명 스님은 "내 인연이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명 스님은 종단이 중국에 파견하는 첫 정식 지도법사. 이번 위촉은 외국인에 대한 종교집회 규제 정책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국 베이징=공동취재단

BBS '거룩한 만남' 새 진행자 지언 스님



“항상 환우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 생각하며 방송하자”
지난 5월부터 새롭게 BBS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의 진행을 맡은 지언 스님(사진). 스님은 매회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고 한다. “제가 가진 힘은 작고, 도와야 할 상태는 너무 많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힘은 작지만 나누면 큰 보람”

그럴 때마다 스님은 스님이 맡고 있는 일을 상기한다. 경기도 군포시 대화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연꽃어린이집 인장이기도 한 지언 스님은 “복지관에서 만나왔던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떠올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힘이라도 나눠야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곤 한다”고 밝혔다. 지언 스님이 '거룩한 만남'을 담당한 이후로 새롭게 시작된 일도 있다. 생령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과 제휴해 매달 한 명의 환우를 생령나눔실천본부로부터 추천받아 소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지난 5월 19일에는 2급 시각장애인이자 뇌종양을 앓고 있는 정대진(22)씨를 첫 환우로 소개했다. 이은비 기자

상담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마련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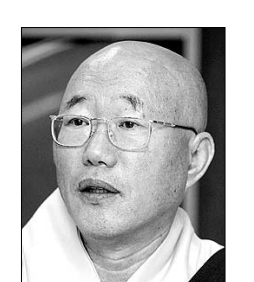
불교상담개발원 초대 사무총장 권경희씨

“개신교, 천주교 등 타종교에는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공간이 있지만 불교계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전문상담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교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자비의전화'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대) 초대 사무총장을 맡게 된 권경희씨(사진)의 포부가 당차다. 이은비 기자



원택 스님 영상제작 솜씨 '세계적'

UNICA 페스티벌서 '한국서민...'으로 대상 수상



“큰스님께서 정진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 배운 촬영기술이 영화제에서 대상까지 받게 될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원택 스님(파라마타청소년협회 회장·사진)이 6월 3일 구리 청소년문화회관에서 열린 UNICA(세계비상업영화기구) KOREA 페스티벌에서 '한국 서민들의 옛집'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독학으로 촬영기법을 배웠습니다.
근대화라는 미명아래 아름다운 전통가옥들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늘 아쉬움을 가졌던 스님은, 이를 영상물로 남겨놓기 위해 전국 곳곳으로 발품을 팔았다. '한국 서민들의 옛집'은 올 8월 말 대구와 경주에서 열리는 '2006 UNICA 세계영화제'에 우리나라 대표작으로 출품된다.
“바쁜 시간을 쪼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는 원택 스님은 “이제 사찰에 담겨 있는 전통미와 예술미를 보여주고 싶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은평구사원원 호국기원대법회



서울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삼천사 주지)와 한국공무원불자자연연합회 소속 은평구청불심회(회장 김은혜)는 6월 15일 은평구청 대강당에서 '제18회 호국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보존단체 자녀 20명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독거노인 등에게 공양미 100kg(25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용인 대원사 약사여래대불 점안법회

대한불교해동종 용인 대원사(주지 송산·해동종 총무원장)는 6월 3일 약사여래대불 점안법회 및 만등불사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대원사 주지 송산 스님은 “모든 불자들의 염원으로 대원사에 세계 최대 약사여래대불을 조성해 매우 기쁘다”며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가 모든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법문했다.



해동종 종정 해봉 스님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12가지 서원을 세우고 교양심총 총무원장 혜정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화강암으로 조성된 약사여래대불은 높이 15m의 좌불로, 팔공산 깎아내려 부처님을 기본 모델로 현대적 양식을 가미했다.

진각종 원로스승 보인정 종사 입적

6월 12일 총인원서 종단장

진각종 원로스승 보인정(眞印定·사진) 종사가 6월 6일 새벽 1시 14분 열반에 들었다. 1927년 경남 밀양군에서 출생한 보인정 종사는 1962년 원대심인당 화도부 임명되면서 진각종에 입문했다. 보인정 종사는 1969년 진각종 제 1기 강원수습단기과정을 수료한 뒤, 대구 희락심인당, 서



울 탑주심인당과 관음심인당, 수원 유가심인당 등에서 교회를 담당했다. 1994년 종사 행계를 품수했다. 영결식은 12일 서울 총인원에서 종단장으로 봉행됐다. 보인정 종사는 진각종 교법부장 무의 정사, 선상신 불교방송 보도국장의 어머니다. 김주일 기자

주지스님, 창건주 보살님, 모든 스님께 알립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정녕 - 부처님의 가피를 모든 불자들에게 전달하고 베풀어야 할 모든 업보를 어깨에 멘 부처님의 살아있는 육신이란 말인가?

본인은 1946년 (음)1월 13일 모친이 금강산에서 100일 기도 끝에 환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나 12살 이후 아버님 뜻에 따라 '옴나니 반매홍'을 외우기 시작한 지난 40여 년간 꿈속에 거의 매일 스님들과 수행, 시험을 거치는 생활을 함께 해왔습니다.

지난 20여년 전 부터는 일반 대중들과의 사업 거래를 끊고 오로지 모든 사찰의 부처님전에만 본인 손으로 직접 제작한 마이크, 스피커를 설치하며 모든 스님들이 보다 맑고 편안한 소리로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고, 모든 불자들에게 설법을 퍼도록 아무리 먼 산寺라도 달려가 소리 보시, 공양을 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이러던 중 지난 2002년 6월 10일 밤 꿈속에 부처님을 처음 친견한지 4년만인 지난 2006년 5월 19일 꿈속에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시어 '海月아- 이제 나가거라, 그리고 전하고 너를 보여 주거라 -' 하시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본인 주변에서 일어났던 기이한 현상들, 몸소 체험하고 주위가 늘날 불가사의한 여러 현실 등이 부처님이 본인의 몸을 통해 세상에 직접 보여주려는 계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찰의 주지스님, 그리고 창건주, 모든 스님들께 부처님을 대신하여 가피를 드릴 기회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 각 사찰 강연 친견 시간은 2시간입니다. 海月합장

海月 김문희는 ● 학력 : 서울 동성 고등학교 졸업, 한양공대 전기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졸업 ● 현재 : 유코음향연구소 대표소장, 서울 성북구 '생활영어회화, 전문 강사 강의중 ● 저서 : '나 영어 술술 잘 한다', '아무주어 교신영어', '음향설비이론', '불교음향이야기 연재,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가피를 직접 체험하실 사찰, 신청요령

- 신청대상 : 모든사찰, 포교원, 선원
• 신청방법 : 희망일자, 시간, 참석인원 등을 희망일 10일 이전에 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게시판)으로 신청바랍니다.
• 신청조건 : 최저 50인 이상의 불자가 모여야 하며, 강의 당일 가족이 큰 수송을 앞둔 분, 어려움에 처한 분 등이 부처님을 대신하여본인으로 부터 직접 가피를 받도록 참석을 권장합니다.
• 신청방법 : 팩스 02)2601-8284
이메일 hl1acu@hanmail.net
인터넷 www.yukosound.com (게시판을 이용 하실 것)
• 주소 : (158-823)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300호) 유코음향연구소

신청 순으로 검토 후, 사찰 4곳만 선정하며, 귀 사찰의 불자님들에게 기회를 배분하는데 대한 개인별로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아니하며, 이는 오직 부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海月 김문희 합장
011-335-2695 / 02)2697-9976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희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경명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